



#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중외제약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면 도입부에 주인공인 장동건과 원빈이 전철을 잡기 위해 뛰어가는 장면 뒤로 <조선중외제약소>라는 벽에 붙은 광고가 보입니다. <조선중외제약소>는 중외제약의 옛 이름. 새삼 중외제약의 오랜 역사가 실감나는 순간이죠? 요즘 일명 잘나간다는 기업들처럼 화려한 광고도 없고, 첨단 유행을 창조하진 않지만 중외제약은 61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묵묵히 생명존중의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반세기를 훌쩍 넘어 한 세기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외제약. 중외제약이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 치료제 시장의 길을 열다

아마도 중외제약 하면 많은 분들이 수액이나 화콜이라는 감기약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평소 병원에 별로 갈 일이 없는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중외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외제약은 아직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일반의약품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치료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수액이나 주사제, 항암제, 항생제와 같은 제품 말이죠.

중외제약은 1945년 설립된 해방둥이 기업입니다. 올해로

창립 61주년을 맞았으니 꽤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장수기업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퇴보도 없이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큰 자부심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외제약은 창립 당시부터 환자와 고객이 필요한 약이라면 아무리 소량이라도 생산해야 한다는 <생명존중, 개척정신>의 창업이념 아래 남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회피했던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어 오늘날까지 생명에 일관된 한우물 경영을 실현해왔습니다.

창립 당시만 해도 <사루소부루카농>, <20%포도당> 20ml, <50%포도당> 50ml 등 3개 제품을 생산 발매하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여러 가지 주사제를 시판하며 주사제 전문업체라는 특성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59년 국내 최초로 <5%포도당>을 개발하면서 수액 역사의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5%포도당 생산을 통해 70년대 중반에는 이미 수액시장의 70%를 점유했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기초의료용 제품으로써 우리나라 의약사의 한 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중외는 치료제 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중외의 연구개발 역사 중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리지노마이신〉입니다. 국내에서는 합성항생제를 자체 생산하는 능력이 없던 시기였지만, 중외는 '한번 해보자는 도전 정신으로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리메싸이클린〉 합성연구에 성공해 69년 5월 〈리지노마이신〉을 발매했습니다. 당시 누구도 가능하리라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수액제와 항생제는 X-ray와 함께 의료계 3대 혁명이라 불릴 만큼 소중한 것으로 중외는 이를 국산화에 성공해 변변한 약 한 번 쓰지 못하고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신약 개발을 위한 의지

지난 61년간 중외제약이 걸어온 과정에는 힘든 시기와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국산화에 성공한 수액은 앞으로 남고 뒤로 밀린다고 할 정도로 이윤이 박한 제품이었고, 결국 부도 위기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60년대 말 부도위기에 몰렸던 회사를 살린 것은 바로 쥐약 〈후라킬〉이었습니다. 쥐잡기 운동이 한창이던 60년대 말, 후라킬은 구서제 시장을 석권하다시피하며 회사 매출증대에 큰 기여를 했지만, 하찮은 미물이라도 생명을 죽이는 약을 만들 수 없다는 성천 이기석 선대사장의 뜻에 따라 71년 결국 자진취하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생명존중의 기업정신을 여실히 보여준 유명한 일화였죠.

그리고 1976년 기업공개, 병점공장 건설 착공 등의 대사건이 이어지면서 중외제약은 더욱 단단한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다들 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중외제약은 76년 기업공개 이후 지금까지 한해도 빠짐없이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화려한 규모와 덩치를 자랑하지는 않지만 정도경영을 통해 건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세계적인 신약개발을 향한 목표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중외제약은 83년 중앙연구소, 92년 일본 주가이제약과 합작으로 설립한 C&C신약연구소, 2000년 미국 시애틀에 CGEN Discov, ery를 설립하는 등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

속적인 R&D 투자는 2001년 국내 최초 3상 신약 퀴놀론계 항균제 〈큐록신정〉, 2004년 차세대 항생제 〈이미페넴〉, 지난해 신개념의 대장암치료제 개발이라는 대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 글로벌 헬스케어 컴퍼니를 향해...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정도를 걸어온 중외의 정신은 외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98년 고객이 뽑은 모범제약사에 선정됨은 물론 한국경영사학회가 수여하는 제5회 창업대상을 중견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수상했고, 2001년 제1회 한국CEO대상, 2003년 대한민국 기업이미지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존경받는 한국 30대기업(동아일보-IBM BCS), 아시아태평양 200대 기업(포브스아시아)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외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매출 1조원, 경상이익 1,000억 원의 글로벌 헬스케어 컴퍼니' 이는 단순히 중외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이고, 또 실현 가능한 미래입니다. 올해 완공한 Non PVC 수액 전문 당진공장과 그동안 선진 제약사와의 제휴를 통해 도입한 오리지널 품목들, 지금까지 꾸준한 투자를 통해 이루어낸 신약개발 기술 등 비전 달성의 발판이 될 성과물들이 하나 둘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많은 중외 인들은 2010년 비전 달성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외의 비전은 곧 많은 이들의 건강한 삶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에 앞서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인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중외는 많은 이들이 꿈꾸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오늘도 전진, 또 전진하고 있습니다.

